

깊이 마음쓰신 문제

주체 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를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촬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창작가들에게 보다 훌륭한 창작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 1 창작단 원도 2실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그곳에서는 창작가들이 컴퓨터를 리용하여 만화영화의 원도를 형상하고 있었다.

창작가들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득 컴퓨터기종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설비의 현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만화영화제작의 전 공정을 컴퓨터화상처리기술에 의거하고있는 촬영소의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가장 중요한 기술수단이였다.

잠시후 일군에게 설비갱신을 언제 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받으시고나서 컴퓨터문제를 자신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마음은 젖어들었다.

아직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만한 이렇다할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 창작가들에게 만화영화제작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만도 분에 넘친 일인데 컴퓨터의 갱신정형에 대해서까지 마음쓰시니 안겨주신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날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보답의 날과 날을 수놓아가리라고.